

원자재펀드 수익률 반짝 반등하자... 환매나선 투자자

최근 1개월 수익률 3.64% 집계
주식투자펀드는 4.95% 상승세
평가차익 노리는 투자자들 발 빼

원유, 귀금속 등 주요 원자재에 투자하는 펀드가 반짝 성적을 내자 자금을 빼내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달러 강세가 달러화로 거래되는 원자재 가격의 상대적 하락을 부추길 것이라 분석과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글로벌 경제 성장세에 대한 물음표가 커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9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원자재 펀드의 최근 1개월 수익률은 3.64%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원자재 관련 기업 주식에 투자한 펀드 수익률도 4.95%로 반짝 상승세다.

연초 이후 -14.92%로 부진한 금펀드도 최근 1개월 동안 0.64%의 수익을 내고

〈주요원자재 관련 펀드 수익률(5일 기준)〉 (단위: 억원, %)

테마	1개월	3개월	6개월	연초이후	1년	2년	3년	5년	
농산물펀드	수익률	-0.23	-0.37	-9.29	-6.56	-8.77	-15.96	-17.77	-33.45
	자금유출입	12	98	41	-78	-198	-194	-116	68
원자재펀드	수익률	3.64	-2.1	-1.31	-2.39	1.64	2.56	12.22	-20.21
	자금유출입	-132	-466	-1,887	-3,789	-5,630	-4,045	-3,945	-654
금펀드	수익률	0.64	-8.8	-12.94	-14.92	-15.5	-22.55	-0.91	-21.69
	자금유출입	41	207	-47	-358	-248	1,346	1,329	1,930
천연자원펀드	수익률	5.61	0.52	5.5	3.88	11.37	15.25	22.08	-22.09
	자금유출입	-195	-764	-1,872	-3,350	-5,176	-5,132	-5,044	-2,282
원자재(주식)	수익률	4.95	-4.06	-0.97	-6.25	-1.94	4.67	35.01	-17.58
	자금유출입	-85	-348	-1,018	-1,272	-1,789	237	-201	-2,775

자료=에프앤가이드

있고, 천연자원펀드도 5.61%의 수익률을 내고 있다.

하지만 손절매와 평가차익을 내려는 투자자는 발을 빼고 있다.

원자재 펀드에서는 한달새 132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연초 이후로 이를 확대하면 3789억원의 자금이 이탈했다.

천연자원 펀드도 한달 동안 195억원의

자금이 이탈했다. 연초 이후로는 3350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원자재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도 연초 이후 1272억원, 한달새 85억원의 자금이 이탈했다.

국제 유가가 10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 전망에도 원유펀드의 자금은 빠져나가고 있다. '미래에셋TIGER원유선물특

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원유-파생형]'에서는 연초 이후 1835억원의 자금이 유출됐다. '삼성WTI원유특별자산투자신탁 1[WTI원유-파생형]'에서도 607억원이 환매됐다.

'삼성KODEXWTI원유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원유-파생형](H)'에는 유일하게 최근 3개월 사이에 25억원이 순유입됐다.

그나마 금펀드가 한달 동안 0.64%의 수익률을 기록하자 41억원 가량의 돈이 유입됐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글로벌 경기 확장세가 누그러지면 원자재 수요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건도 우호적이지 않다.

원자재 펀드 수익률은 미·중 무역전쟁 여파를 고스란히 받는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 5일 기준 달러인덱스는 95.62에 달하고 있다.

미국은 4차 관세 부과 절차를 진행중이고, 중국과의 분쟁 영역을 정치, 군사, 사회 분야로 확장할 조짐이다.

달러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달러가 연중 최고치를 향해 가고 있다"면서 "이탈리아 재정안정 문제가 부각되면서 상승 반전한 달러는 미국 채권 금리 급등에 따른 불안 심기가 달러 강세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제금융센터 김용준 연구원은 "10월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11월 미 중간선거 등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 투기거래자들의 거래 동향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나해 하반기 달러 매수 포지션 청산 과정에서 달러 급락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지난 7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공항견학에 참가한 인천수어통역센터 청각장애인들이 안내데스크에 설치된 문자안내방송시스템, 화상전화기, 히어링루프 등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받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공, 청각장애인 초청 공항견학

셀프체크인·안내로봇 이용 등 체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7일 인천수어통역센터 청각장애인을 제2여객터미널에 초청해 맞춤형 공항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견학 프로그램은 공공자원을 국민에게 개방하고 교통약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편리한 공항 이용을 돕기 위한 인천공항공사의 사회적 가치실현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청각장애인 등 30여명은 제2여객터미널 5층 홍보전망대를 포함해 여객의 입국과 출국 동선을 따라 이동하며 셀프체크인 체험, 정부행정종합센터 견학, 공항 곳곳의 예술작품 감상, 안내로봇 이용

체험 등을 했다. 특히 문자안내방송시스템, 화상전화기, 히어링루프 등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체험해보는 맞춤형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문자안내방송시스템은 터미널 내 음성 안내방송을 듣기 힘든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안내 문구를 시각 형식으로 표출해주는 시스템이다.

안내데스크를 방문해 문자안내를 요청하면 최근에 송출되었던 안내방송을 모니터 상에 자막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안내데스크에 설치된 화상전화기를 사용하면 수어통역사가 화상통화로 연결돼 청각장애인 사용자와 안내직원 사이에서 통역해준다. /채신화 기자

재감사에 20억... 소명절차서 비용 수억 추가

>> 1면 '간간해진 감사...'서 계속

이번 상장폐지 대상이던 상장사 IR 담당자는 "회계법인은 올해 처음 도입된 디지털포렌식(디지털기기를 활용한 정보수집)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수 억원의 비용을 청구하고, 회사 컴퓨터 하드디스크까지 모두 가져갔다"면서 "회사가 하드디스크까지 내놓은 것은 그만큼 상장 유지에 대한 의지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감사 비용은 20억원이 넘게 들었고, 앞으로 법원 소명 절차를 거치면서 수 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

◆주주 "결국 부담은 서민 주주만"

또 이들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주주들의 반발도 거센 상태다. 특히 모다, 에프티이앤이의 경우 정리매매 기간을 1거래일 앞두고 법원의 인용판결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절차가 보류됐는데 이미 정리매매를 통해 '손절매'한 주주도 다수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번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비판의 글이 다수 올라온 상태다. 9일 올라온 국민청원에는 "수 십 억원씩 거액을 들여 강제지정회계를 받게 하고 트집 잡고 시비 걸어서 상장 폐지시키는 정부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왔다. /손영지 기자 sonumj301@

연내 2.1만 가구 붓물... 지방 '큰 장' 선다

부산·대구·대전 등 5대 광역시
전년비 38% ↑ ... 부산 1.1만 가구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 등 지방 5대 광역시에서 분양 큰 장이 열린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상대적으로 덜 받는 지역인 만큼 청약 인기가 높을 전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부터 연말까지 지방 5대 광역시 일반분양 공급예정 물량은 총 2만 1274가구(임대·조합아파트 제외)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공급된 1만 5431가구에 비해 약 37.8% 증가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부산광역시에서 가장 많은 1만 1019가구가 분양된다. 이어 ▲대구광역시 5651가구 ▲광주광역시 2519가구 ▲대전광역시 1149가구 ▲울산광역시 936가구 순이다.

업계는 4분기에도 이들 지역의 청약 인기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분양단지 중 청약경쟁률 상위 5곳은 모두 지방 5대 광역시 내 분양단지가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광역시 중구에서 지난 1월 청약 받은 'e편한세상 남산'이 평균 346.51대 1의 경쟁률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e편한세상 둔산1단지(321.36대 1)',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284.19대 1)',

〈올해 청약경쟁률 상위 5위 단지〉

순위	분양시기	단지명	지역	청약경쟁률
1	2018.01	e편한세상남산	대구광역시 중구	346.51
2	2018.01	e편한세상둔산(1단지)	대전광역시 서구	321.36
3	2018.08	남산롯데캐슬센트럴스카이	대구광역시 중구	284.19
4	2018.07	갑천트리폴시(3BL)	대전광역시 서구	263.62
5	2018.01	e편한세상둔산(2단지)	대전광역시 서구	241.91

자료=금융결제원

갑천 트리폴시 3블록(263.62대 1)', 'e편한세상 둔산2단지(241.91대 1)'순으로 나타났다.

10~12월에도 지방 5대 광역시 알짜 입지에서 유망단지가 나와 눈길이 쏠린다.

대구에서는 코오롱글로벌이 10월 수성구 신대동 예전 이마트 부지에 주거용 오피스텔 단지 '시지 코오롱하늘채 스카이뷰'를 분양한다. 최고 46층의 초고층 랜드마크로 조성되며, 686실 모두 전용 84㎡로 구성된다.

GS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은 12월 대구 중구 남산 4-4지구에 '남산4-4지구 자이 하늘채(가칭)'을 선보인다. 1368가구(전용 39~84㎡) 규모로 이 중 963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부산에서는 ㈜일동이 10월 동구 좌천동 일대에 '부산항 일동 마라주 더오션'을 공급한다. 이 중 아파트는 546가구(59~84㎡) 가운데 513가구가 일반 분양되며, 오피스텔은 68실(전용 82~83㎡)로 구성된다.

같은 달 대우건설은 부산 영도구 동삼동 하리도시개발구역에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아파트는 846가구(전용 84~115㎡), 레지던스는 160실(전용 21~32㎡)로 구성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11월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서 '힐스테이트 명륜 2차'를 공급한다. 지난 2016년 분양한 힐스테이트 명륜의 후속단지로, 87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광주에서는 중흥건설이 10월 북구 임동2구역에 재개발하는 '임동2구역 중흥S-클래스'를 공급한다. 총 658가구 규모로 이 중 440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또 반도건설은 11월 남구 월산1구역을 재개발하는 '광주 월산 반도유보라(가칭)'를 분양한다. 889가구 규모로 이 중 631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울산에서는 동원개발이 중구 우정혁신도시 3-3블록을 개발해 36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선보인다. 대전에서는 한화건설이 12월 유성구 가동동 일대 대전 매봉공원을 개발해 434가구 규모의 '꿈에그린' 아파트를 공급한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인천 검단신도시 6000여 가구 공급

하반기 분양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이달부터 연말까지 6000여가구가 공급된다. 검단신도시는 수 년째 표류를 거듭해오던 곳으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중심상업지구가 위치한 1단계 분양과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선 신설역(2024년 예정)으로 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9일 다더아파트에 따르면 연말까지 인천 검단신도시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5곳, 5943가구다. 업체별로는 ▲금호건설 '검단금호어울림 센트럴(1452가구)' ▲우

미건설(1257가구) ▲호반건설(1168가구) ▲대방건설(1281가구) ▲유승종합건설(938가구) 등이다.

검단신도시는 전체 7만 4735가구 규모로 수도권 내 마지막 2기신도시인 일산신도시이다. 인천 서북부지역에는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LH가 인천 서구 당하마전·불로·원당동에서 1118만 1000㎡, 인구 18만여명, 7만 4735가구로 조성 중이다.

지리적으로 김포한강신도시보다 서울과 더 인접해 있으며 청라경제자유구역~김포한강신도시~서울을 잇는 수도권 서

북부의 대표 거점도시다. 서울 마곡지구와 직선거리로 약 7km, 김포한강로, 서울 외곽순환도로 등이 인접해 있고 마곡산 입단까지 차량으로 30여분 거리다. 특히 검단신도시는 수도권 2기신도시의 마지막이자 비규제지역이라서 수요자의 관심이 더 높을 전망이다.

올해 분양하는 단지로 유승종합건설은 이달 검단신도시 AA4블록에서 '검단신도시 유승한내들 에듀파크' 84~107㎡ 938가구를 분양한다. 단지 인근에 유치원, 초·중·고교가 계획돼 있다. 호반건설은 이달 검단신도시 AB15-2블록에서 '검단신도시 호반베르디움' 72~84㎡, 1168가구를 분양한다. /이규성 기자 peace@